해외여행 갈 돈 백화점서 썼다

코로나 '보복심리'에 명품·가전·골프용품 등 '고가 소비' 늘어

광주신세계, 1분기 건별 100만원 이상 매출 전년비 6.4%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도 광주 지역 백화점 고액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하늘길이 막히면서 억눌린 소비 심리가 고가 상품을 구매하는 '보복 소비'로 표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8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이 점포의 건별 100만원 이상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다.

건당 금액대별 매출 증가율을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 소비는 '10만원 이상'(3.5%)과 '50만원 이상'(5.1%)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동안 한 번에 100만원 이상을 결제한 고객 수는 전년보다 4.6% 증가했다.

10만원 이상 고객 수는 3.2% 늘었고, 50만원 이상 고객은 5.1% 증가했다.

단 구매 횟수는 '50만원 이상'이 1.2% 증가할 동안 10만원 이상(0.6%)과 100만원 이상(0.6%)은 이를 밑돌았다.

백화점에서의 고액 소비 증가세는 '코로나 기저 효과'로 인해 지난해 절정을 이뤘다.

2020년 1분기 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대형 유통매장 매출이 곤두박질친 탓에 지난해 1분기 건당 100만원 이상 매출 증가율은 39.9%에 달했다.

같은 기간 50만원 이상 매출은 코로나 확산 첫해보다 14.7% 증가했고, 10만원 이상 매출 증가율은 8.2%에 그쳤다.

특히 10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 수는 지난해 28.2% 급증했다. 이는 10만원 이상 고객 수 증가율(6.2%)과 50만원 이상(14.0%)의 2~4배 수준이다.

지난해 100만원 이상 구매 횟수는 30.9% 늘었고, 50만원 이상은 12.4%, 10만원 이상은 5.2% 증가했다.

이 같은 고액 소비 증가는 구매력을 가졌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활동 반경이 좁아진 소비자들이 해외 명품과 고가 가전, 골프용품 등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광주신세계 개장을 앞둔 오전 10시 30분께는 정문 앞에 50명 넘는 고객들이 줄을 이뤘다.

백화점 영업 시작과 동시에 명품 매장으로 달려가는 '오픈런' 현상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주말의 경우 입장을 대기하는 행렬은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들 명품 매장은 하루 응대하는 고객 수가 한정돼있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려는 고객들이 개장 전에 줄을 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불안정한 경기를 틈타 고가 브랜드들은 불황을 비켜갔다.

루이비통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40% 늘어난 1조4681억원, 영업이익은 3019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디올의 지난해 매출은 6139억원으로 전년보다 87%, 영업이익은 2115억원으로 102% 성장했다.

소비자들의 명품 구매 욕구가 높아지면서 '명품은 오늘 사는 것이 가장 싸다'는 우스갯말이 나올 정도로 명품 브랜드들은 가격을 시도 때도 올리는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루이비통은 지난해 5차례나 제품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해외여행이 막히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명품 등 소비에 쓰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일상 회복과 함께 해외여행이 풀리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효성그룹 '윤경 CEO 서약'…ESG 경영 실천 다짐

효성티앤씨 등 5개사 참여

효성그룹이 28일 '윤경(윤리경영) ESG 포럼'이 주최로 서울 서대문 핀란드타워에서 열린 '제19회 윤경 CEO 서약식'에 참여해 ESG 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지주사인 ㈜효성을 비롯한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5개사 대표이사들은 서약식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사회가치 실현에 협력 ▲산업계의 ESG 문화 확산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사회와 환경에 최우선 가치를 두기에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효성 김규영 대표이사 부회장은 "윤리경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경영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며 "윤리경영을 효성의 DNA로 정착시키고, ESG경영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효성그룹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윤경CEO서약'을 비롯해 '공정거래자율준수선언', 'BIS 서밋 반부패 서약' 등을 통해 최고경영진들부터 윤리경영 의지를 다져왔다.

또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마련하고 윤리경영 교육과 공정거래 교육 등을 실시해 전 직원에게 윤리경영 실천 및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산업정책연구원(IPS) 산하 윤경 ESG포럼은 2003년 3월 윤리경영 확산과 산업계의 윤리적 기업 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산학연 다자간 모임으로 발족한 민간포럼이다.

ESG경영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윤경CEO서약식'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서약식에 참가한 누적 서약자 수는 1120여명, 서약 참여 기업 수는 420여개사에 달한다. 올해도 140여명의 기업인, 사회단체 및 학계 관계자들이 서약식에 참여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양궁 국가대표 선전 기원합니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가운데)은 지난 27일 양궁 국가대표 안산, 최미선 선수와 김성은 감독을 포함한 광주여대 양궁단을 본점에 초청해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은행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 국가대표로 선발된 안산, 최미선 선수를 응원했다. 〈광주은행 제공〉

영국 팝 아티스트 존 버거맨 작품 감상 MBTI 성격 검사하고 가상공간서 쇼핑

광주 주요 백화점 행사 다채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광주 주요 백화점들이 다양한 체험행사로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5월 한 달 동안 '슈퍼 해피'를 주제로 고객 체험행사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영국 유명 팝 아티스트인 존 버거맨과 손잡고 거대한 갤러리로 변신한다.

매장 곳곳에 그의 작품을 반영해 '행복'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5일 어린이날에는 아동 매장·식품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풍선을 증정한다. 문화센터에서는 버블 매직쇼 공연과 케이크 만들기, 포켓몬카드 만들기 등 특강이 진행된다.

광주신세계도 다음달 5~8일 방문 고객에게 풍선 머리띠와 스티커를 증정하며 인형뽑기 등 행사를 벌인다.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앱을 통해 '다른 그림 찾기' '엠비티아이(MBTI) 성격 유형 검사'를 진행하고, 가상공간에 '더 스테이지'를 마련해 백화점 쇼핑을 돕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GGM 노사 상생으로 5만대 생산 달성하자"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 1주년 기념 실천 결의대회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28일 공장 준공 1주년을 하루 앞두고 본사 중앙광장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상생의 일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공장 준공 1년을 맞아 '노사상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최근 ACU(에어백 컨트롤 유니트) 부품 수급 어려움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전 직원이 뭉쳐 이를 극복하는 등 올 생산 목표 5만대 달성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에서는 상생과 최고 품질로 글로벌 베스트 생산기업으로의 도약을 다짐했으며, 상생협의회 의장과 근로자 대표, 상생의 일터 실천협의회 대표 등이 함께 상생 선언을 했다.

특히 광주글로벌모터스 모든 임직원이 함께 참여한 상생 선언에서 ▲상생과 최고 품질의 생산성으로 회사발전과 함께 고용안정·동반성장을 꾀하고 ▲자동차 생산 전문기업으로서 안정적 성과 창출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며 ▲주인의식을 갖고 소통과 협력의 파트너십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할 것을 다짐했다.

박광태 대표이사는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GGM 임직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이 같은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있어 고맙고 든든하다"며 "우리 모두가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상생과 세계 최고의 품질을 확보해 올 생산 목표 달성은 물론 GGM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 전문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GGM은 2019년 12월26일 공장을 착공해 492일 만인 2021년 4월29일 공장을 준공한 뒤 그해 9월15일 첫차 '캐스퍼' 생산을 시작으로 양산에 돌입했다. 이날 광주·전남 지역인재 580여명 등 621명의 직원을 채용해 지역 고용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67.49 (+28.43)
↓	코스닥	892.22 (-3.96)
↑	금리 (국고채 3년)	2.925 (+0.026)
↑	환율 (USD)	1272.50 (+7.30)